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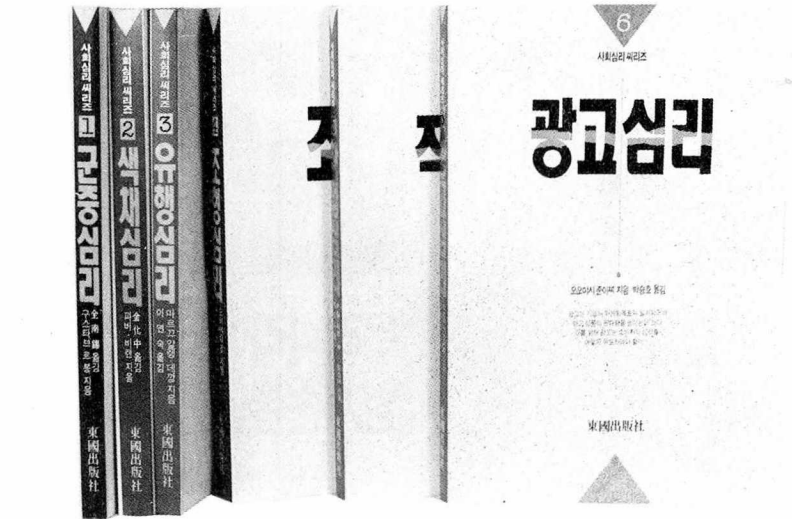
# 산업사회와 심리학이론의 만남

동국출판사의 번역물 '사회심리씨리즈'

인간의 일상적 행동과 의식 아래에는 오랜 세월 쌓여온 공동의 잠재된 심리가 흐르고 있다. 이 흐름의 근원을 찾음으로써 현대사회의 모든 현상은 더욱 뚜렷이 파악될 수 있다. '산업사회와 심리학의 만남'이란 주제로 엮여지고 있는 '사회심리씨리즈'(동국출판사)는 이 점에 착안, 산업사회의 저변심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일련의 번역서를 펴내 색다른 관심을 끈다.

구스타브 르 봉의 저명한 고전 「군중심리」를 첫권으로 시작한 이 시리즈는 색채·유행·조형·작업·광고심리 등 6권으로 이어진다. 정치형태나 문화예술, 유행의 창출, 대량소비 등 모든 사회분야에 심리학을 대입시켜 필자마다 개성있는 관점에서 서술된 것이 특징이다. 1895년에 저술된 르 봉의 「군중심리」(全南錫 옮김)는 지금도 사회학 교과서로서 생명력을 지닌 책. 계몽주의에 대한 환멸이 휩쓸던 1890년대의 유럽 상황에서 저자는 "군중은 이론이나 이성으로 지도되는 것이 아니고 비이성적인 힘의 지배를 받는다"는 주장을 편다.

이에 비해 「작업심리」(피츠, 포스너 지음 / 이연숙 옮김)는 보편적 개인심리에 바탕을 둔다. 다분히 생물심리학적 접근이 짙은 이 책에서는 인간이 숙련된 노동, 작업기능을 습득하는 원리는 무엇이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작업능률은 어떻게 향상되는가의 질문을 통해 인간능력에 대해 탐구한다. 저자는 예컨대 피로, 스트레스와 작업효율의 관계, 작업심리와



능률향상의 법칙, 정보이해를 위한 언어기능의 변환 등을 정밀한 측정과 실험을 거친 실례를 통해 보여준다.

'아름다움'의 추구는 인류의 본능처럼 여겨져왔고 그것은 색과 조형으로 표출, 형태화되었다. 「색채심리」(파버 비렌 지음, 金化中 옮김)와 「조형심리」(오미 겐타로 지음, 권민 옮김)에서 그 근원을 밝힌다. 세계적 색채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파버 비렌은 놀라울 정도로 광범위한 색채의 영향을 원시시대부터 캐낸다. 생명의 근원인 햇빛의 현시를 곧 색채라 보았던 문명초기단계로 시작되는 역사적 관점은 신비주의자, 철학자, 과학자들의 색채탐구로 전개된다.

색채의 미적 감성을 형태화한 것이 미술 혹은 조형의 행위라 한다면 「조형심리」는 그

'아름다움'의 철학적 주제를 측정과 실험으로 분석하는 과학적 방법론으로 풀어낸다. 눈에 비치는 미술작품의 세계, 미적 판단의 객관성과 개인차, 미적 표현력을 이루는 창조성과 퍼스널리티 등이 연구사례를 통해 소개된다.

현대사회의 주된 현상으로 사회심리학자들은 '유행'을 꼽는다. 「유행심리」(마르그 알랭, 데깅 지음 / 이연숙 옮김)에서는 그 궁극적인 의미는 발견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일상에서 항상 마주치게 되는 '유행의 현상'을 구조분석한다. 유행은 어리석고 모순된 것, 부조리하며 예측불가능한 것인 동시에 자연스럽고 보다 자유로운,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변화현상으로서의 유행은 사회이동이라는 반향을 낳으며 문명의 혁신을 이룬다. 반면 유행은 경제·산업·기술과 결탁해 매스미디어, 광고

등의 장치를 통해 새로운 유행을 연출하면서 기계화와 상업적 이용의 불가피한 미끼가 되기도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유행의 메커니즘 요인과 기본법칙, 의미 등을 역사·경제·정신분석학적 관점을 도입해 살핀다.

현대사회의 또다른 특징은 광고시대로 표현된다. 「광고심리」(오오이시 준이찌 지음 / 박승호 옮김)는 현대사회에서 광고의 기능을 소비자 행동심리와 마케팅, 사회문화적 영향을 통해 파악한다. 예컨대 텔레트와 광고효과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상품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소비성향·흥미·관심·사용경험 등의 여러 심리적 작용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광고는 기업 마케팅이라는 실천적 측면이 있는 한편, 그 사회적 영향의 방대함으로 윤리적 측면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책의 심리학적 접근은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보하고 있다.

얼핏 별개의 주제인 듯한 이 시리즈의 각 분야는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지니고 있다. 이어서 발간예정인 「구매심리」「투표심리」「종교심리」각권 또한 미묘한 인간행위의 근원적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계속된 비중을 둔다. 다른 시기에 여러나라에서 출간됐던 저서들의 번역이라 한국상황에서는 일정정도 한계를 지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리즈는 인류탄생 이래 고착돼온 인간의 행태 혹은 현대사회 특질로 꼽히는 독특한 문화, 그 뒤에 숨은 '의식흐름'을 과학으로 포착한 첫뭉치이라는 큰값을 하고 있다.

## 한 작가 집중조명한 연속기획

삼인행 '작가연구시리즈'

우리시대 의식세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던 소설가들의 작품론과 작가론을 한자리에 모은 시리즈가 나와 주목을 끈다. 이미 수많은 베스트셀러로 대중적 인기를 확보하고 있는 세 작가를 대상으로 한 평론들을 각각 「이문열론」「이청준론」「박완서론」의 '집중탐구'로 꾸며 묶은 것.

「젊은 날의 초상」「금시조」「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등 발표된 작품마다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능란한 이야기꾼'으로서의 저력을 과시했던 이문열은 술한 평론가들의 글쓰기 대상이었다. 「이문열론」(김윤식 외 16인)에는 그러한 비평가들의 평론이 '낭만적 상상력의 세계인식'(이동하) '능란한 이야기솜씨와 관념적 경향'(유종호) '개인과 자유를 향한 열망'(성민엽)의 작가론과 '절망의 현상학'(「젊은 날의 초상, 이태동) '베끼기의 문학적 의미'(「황제를 위하여, 김현) '변두리 역

자의 소설화'(「변경, 김경수) 등의 작품론으로 정리돼 있다.

60년대에 등단해 「이어도」「낮은데로 임하소서」등 꾸준한 작품을 발표, 이 시대 '지적작가'로 꼽히는 이청준의 작품세계는 「이청준론」(김치수 외 13인)에서 집중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진실을 탐색하는 이야기꾼」(신동욱)으로 파악되는 이청준의 문학과 「진실과의 갈등」(「병신과 머저리, 김병익) '문제탐색을 위한 다층적 플롯」(「이어도, 현길언) '제 의와 화해」(「비화일교, 김주연) 등의 작품론을 통한 진실추구의 글쓰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소시민적 삶과 일상의 뒷'(이광호) '함께 사는 꿈을 위하여'(김치수) 등의 작가론으로 박완서의 문학세계를 짚어낸 「박완서론」(권

영민 외 21인)은 지금까지도 계속돼 온 그의 문학적 해부와 분석에 대한 새로운 전망들을 담고 있다. 특히 '여자다움의 껍질벗기'(박혜란) '박완서문학에 있어 비평은 무엇인가?(조혜정) '여성문학과 진정한 비평의식'(전승희) 등은 페미니즘 문학 비평의 새로운 지평을 연 계기가 됐던 평론들이다. '사회적 허위에 대한 인생론적 고발」(「휘청거리는 오후, 염무웅) '한국인의 유산과 그 미망」(「도시의 흥년, 김우중) '고립된 폐쇄주의, 그 비극적 결말」(「미망, 신덕룡) 등의 작품평론은 "무신경하려고 스스로 노력"한 결과 "호평에 즐거워하지도, 혹평에 마음 상하지도 않은" 작가의 문학태도와 함께 작품을 통한 인간탐구의 내면을 엿볼 수 있다.

삼인행 / 125신 / 각 350면내외 / 각 4,800원